
폐색전증 의심 환자에서의 pulmonary CT angiography의 유용성

서울대학교병원 · 서울의대 내과학교실*

최은영, 임흥선, 권오성, 김명구, 김태용*

목 적 : 폐색전증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며, 최근 이의 진단에 CT angiography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. 본 연구는 pulmonary embolism 의심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pulmonary CT angiography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pulmonary CT angiography를 시행한 환자들 중 폐색전증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.

결 과 : Pulmonary CT angiography를 시행한 환자는 총 140명이었다. 이 중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시행한 경우는 40명이었고, 이들 중 진단되어 치료를 한 경우는 21명(52.5%)이었다. Pulmonary CT angiography의 민감도는 76.2%(16/21) 이었고, 특이도는 94.7%(18/19)이었다. 폐관류 스캔은 pulmonary embolism으로 진단되어 치료한 21명 중 17명에서 시행되었고, pulmonary embolism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19명 중 11명에서 시행되었다. 폐관류 스캔의 민감도는 82%(14/17)이었고, 특이도는 72.7%(8/11)이었다.

결 론 : Pulmonary embolism 의심 환자에 있어서 pulmonary CT angiography는 높은 specificity를 보이고 있어 pulmonary embolism 질환의 확진에 유용한 검사라 할 수 있다.